

## 몸은 나주에 살고 돈은 서울서 쓴다

빛가람혁신도시 주민 지난해 지출 5분의 1 수도권서 사용

27.5%는 광주에서 소비

지난해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주민 지출의 5분의 1은 수도권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도시 주민들이 동네에서 쓴 돈은 총 지출의 3분의 1에 그쳤다.

19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빛가람혁신도시 거주자가 혁신도시 안에서 소비한 금액 비중은 29.8%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은 신한카드 빅데이터를 활용해 빛가람혁신도시가 있는 나주 빛가람동 거주자의 개인 신용카드 승인실적 거래자료를 분석했다.

지난해 혁신도시 주민들이 신한카드로 소비한 금액은 총 2303억원으로, 이 가운데 3분의 1 수준인 687억원을 동네에서 썼다. 빛가람동 주민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쓴 금액은 441억원으로, 19.1% 비중을 차지했다. 이 비율은 전국 10개 혁신도시 평균(17.6%)을 웃도는 수치다.

수도권으로 간 돈에 비해 수도권 지역민이 빛가람혁신도시에서 쓴 돈은 163억원에 그쳤다. 이 금액은 혁신도시로 유입된 전체 금액(1608억원) 중 10.2% 정도였다.

혁신도시 주민들이 동네 외에 가장 많이 돈을 쓴 지역은 광주였다. 광주에서 쓴 돈은 634억원으로, 전체 지출의 27.5%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전남으

로의 지출 비중은 7.1%(162억원)에 그쳤다. 모(母)도시인 나주시에서 쓴 비중은 8.7%(201억원)로, 전국 평균(24.3%)을 크게 밑돌았다. 나주와 수도권, 광주·전남을 제외한 다른 사·도·군·시·읍·면·동에서 쓴 금액은 177억원(7.7%)이었다.

혁신도시 안에서 발생한 소비유입 금액은 총 1608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5분의 2 이상(42.7%)에 달하는 687억원은 혁신도시 주민들이 쓴 액수다.

거주민 외에 혁신도시에서 가장 돈을 많이 쓴 사람은 광주시민이었다. 광주로부터 들어온 소비유입은 전체의 22.4%인 360억원이었다. 이어 ▲나주시 11.6%(186억원) ▲수도권 10.2%(163억원) ▲전남도 7.3%(118억원) ▲타 사·도·군·시·읍·면·동 순으로 나타났다.

빛가람혁신도시 주민이 쓴 돈과 혁신도시로 들어온 유입액을 비교해보니, 소비지출(2303억원)은 소비유입(1608억원)보다 43.2%(695억원) 많았다. 혁신도시 주민들이 동네 밖에서 쓴 돈이 더 많다는 뜻이다.

한편, 빛가람혁신도시가 생기기 4년 전인 지난 2011년, 같은 구역 내 주민들의 씀씀이는 26억원에서 687억원으로, 26.4배로 늘어났다. 혁신도시 지역 소비유입도 373억원에서 1608억원으로 4배 증가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무안광주공항’ 이냐 ‘광주무안공항’ 이냐

무안공항 이름에 ‘광주’ 넣기로  
광주시·전남도 추가 협의 필요

무안국제공항 이름에 광주를 넣어달라는 광주시 요구를 전남도가 받아들여기로 했다. 다만 전남도는 ‘무안광주공항’을, 광주시는 ‘광주무안공항’을 바라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2021년까지’라고 약속한 민간공항 이전 시기가 다가오면서 광주에서는 공항 이전과 연계하려는 움직임이, 전남에서는 광주시의 기존 요구를 수용하며 명분상기에 나선 모양새다.

전동호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19일 전남도청에서 브리핑을 하고 무안공항 명칭 변경을 포함한

공항 활성화 방안 세부 추진사항을 제시했다. 전 국장은 “그동안 논란이 많았지만 이는 소모적인 논쟁은 없어야 한다”며 “무안공항의 이름을 무안광주국제공항으로 바꿔 달라는 광주시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시의 공식 요구가 들어오는 대로 명칭 변경을 국토교통부에 바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또 무안공항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국내선 항공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항공권을 살 때 할인해주고 항공사에 그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광주공항의 국내선 이전에 대비해 시설도 차질 없이 확충한다. 354억원을 들여 현행 활주로 2800m를 2023년까지 3200m로 늘리고 호남고속철도도 연결할 방침이다. 여객정사·주차장·면세점·장비고·관리동·통합관사 등 342억원 규모의 확장·신축사업도 하고 있다.

무안군이 직접 경영개발방식으로 시행하는 항공특화(MRO)산업단지도 국가 배후단지 조성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남도가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 이처럼 명칭 변경을 포함한 공항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지만, 의도대로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수능 D-13’ 가림막 설치하고 시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9일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 비아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설치되는 가림막의 문제점 등을 점검하기 위해 시험을 치르고 있다. ▶관련기사 6면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 순천, 오늘부터 거리두기 2단계 격상

5단계 세분화 이후 전국 첫 사례  
전남 18일 하루 확진자 28명  
주말·휴일이 대규모 유행 기로

순천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0일 0시부터 기존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된다.

〈관련기사 2·6면〉

지난 7일 코로나 재확산 이후 확진자가 폭증한 데 따른 것으로, 중앙 방역당국이 3단계 거리두기 체계를 5단계로 세분화한 이후 2단계로의 격상은 순천이 전국 최초다. 지난 18일 하루 확진자 28명으로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유입 이후 최대 확진자가 나온 전남지역에서는 이번 주말과 휴일이 대규모 유행의 기로가 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남도는 “20일 0시부터 순천시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다”고 19일 밝혔다.

순천시는 금융기관을 시작으로 기업체, 학교, 병원, 사우나, 카페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시설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지속해서 발생했다. 전남에서는 지난 7일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11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57명이 순천에 집중됐다.

지난 18일에는 순천 별량면 삼삼마을 주민 10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이날 하루 동안 순천에서만 19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여기에 초등학교 3명이

잇따라 확진되고 12월 3일 대학수학능력시험까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방역 강화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20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는 순천에서는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 금지된다. 노래연습장 등 중점관리시설은 밤 9시부터 영업이 금지된다. 카페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식당은 좌석 한 칸 띄우기 등을 준수해 운영할 수 있으나 밤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일반시설(14종)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종교활동의 경우 정규모임, 미사, 법회, 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참여 가능하며, 종교시설 주권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순천뿐 아니라 전남에서는 광양, 목포, 나주 등 곳곳에서 확진자 발생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8일 전남에서는 순천 19명과 목포 5명을 비롯해 광양·나주·화순에서 각각 1명씩 확진자가 나왔다. 19일에는 오후 6시 현재 순천 1명, 광양 1명, 나주 2명 등 4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광주에서는 지난

18일 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19일에는 오후 6시 현재 확진자 1명만 나왔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지역 곳곳에 코로나 19에 걸린 것을 인지하지 못한 ‘숨은 코로나 환자’가 산재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말과 휴일이 대유행으로 가느냐 여부를 가를 수도 있다”며 “순천뿐 아니라 전남지역 어디에서는 코로나 19에 감염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부 활동을 최소화하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에서는 18일 하루 동안 343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7일 313명보다도 30명 더 늘어나며 지난 8월 수도권 유행 이후 처음으로 이를 연속 300명대를 기록했다. 지역 발생이 293명, 해외 유입이 50명이다.

지역 감염(발생)은 서울이 10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59명), 경남(28명)이 뒤를 이었다. 전남은 27명, 강원 20명, 충남 13명, 인천 11명, 광주 8명, 경북 8명 등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국민대통합을 위한  
**영호남 문화대축전**  
11.06 - 11.30  
온라인 소공연 운영 NAVER [영호남 문화대축전] 11월 6일  
문화주간 광주일포서 매일신문사

광주 남구, 저수지 메워 축구장 건립? ▶7면

KIA 브록스와 재계약 '따뜻한 정' 통했다 ▶18면

미디어아트 도시 광주 브랜드 가치 높여라 ▶22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총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IOPE  
RETINOL EXPERT  
RETINOL 0.1%  
NEW

슈퍼레티놀  
단 2주 만에 주름잡다

| 아이오페 레티놀 엑스퍼트 0.1% |

주름을 위한 당신의 노력을, 얼마나 효과가 있었나요?  
이제, 주름보다 강한 슈퍼레티놀로  
확실한 주름 개선 효과를 느껴보세요

레티놀은 아이오페

IOPE